



<http://council.gangwon.kr>

강 원 의 정

월간 강원의회 제128호
2015년 4월 8일 수요일
발행처: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00-02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55-8167 kist207p@korea.kr 인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제 128호 지 면 안 내

- | | | | |
|-----------------------------|--------|----------------------|--------|
| • 명예의장, 명예도지사 | 2면 | • 경제건설/교육위원회 | 12면 |
| •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 3·4·5면 | • 특별위원회 | 13면 |
| • 5분 자유발언 | 6·7·8면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14면 |
| • 제243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9면 | • 의원동정 | 15·16면 |
|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 10면 | | |
| • 사회문화/농림수산위원회 | 11면 | | |

참가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명 | 예 | 의 | 장



최 문 순 강원도지사

명예의장으로 이 자리에 서보니 큰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들이 한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도지사와

의회의장의 역할을 바꿔보는 시도가 아마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가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상생 화합하는 토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림픽과 레고랜드 등 현안들에 대해 관심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격동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나 타지자체의 경우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의 단절된 물꼬를 희망의 물줄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하나된 힘, 단결된 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결정적 시기'인 앞으로의 3년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만 강원도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격동속의 강원도를 힘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그 출발선으로 삼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명 | 예 | 도 | 지 | 사



김 시 성 강원도의회의회장

오늘 일일명예도지사로서 이 자리에 서니 새로운 책임감과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문순 일일명예의장님 또한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의 국내·외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서민증세 증가, 글로벌 경제의 침체, 논리와 명분의 부재 등 산적한 문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직 강원도의 밝은 미래와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당·계파·지연·혈연·학연 등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을 대표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선입견과 편견, 시기와 오해, 비뚤어진 신념과 집착을 버리고, 문제를 당당히 인정하고 똑바로 마주 보아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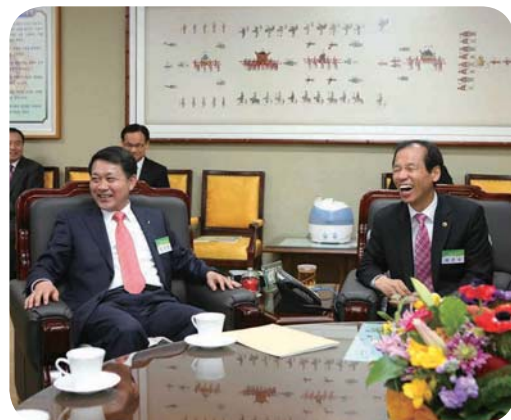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낡은 틀'을 과감히 쇄신하여, '새롭고 힘찬 혁신의 틀'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함께 만

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는 '역지사지'의 깨우침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만 도지사직을 수행하지만, 이 하루의 경험이 앞으로의 도정발전과 강원도의 희망찬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큰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도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구 자 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Q 비드파일에는 아이스하키I 경기장이 원주로 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철거를 한

다고 함. 그것에 대해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상실감이 큰 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지사 IOC에 약속한 대로 이축한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인, 해체해서 이축하든, 철거하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원주시민들의 선택에 따르겠음

Q 이축에 대한 재원부담 관리주체를 정하려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아직도 안 정해지고 있음.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을 도비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철거후에 이축을 하시겠다?

도지사 그것이 공식 입장이고 정부에도 전 세계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라고 총리께서 주재하는 대회지원위원회에도 부탁을 했고, 국회에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음

Q 동계올림픽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올림픽 선언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북한의 동참에 대해 문은 열어주되 분산개최라든가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함



신 도 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홍천군 제2선거구

Q 농업진흥지역 완화와 해제는 시대의 요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함.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도지사 기반 정비가 안 된 곳, 그 다음에 자투리땅, 15% 경사도인 토지, 그리고 시범지구 지정, 이 네 가지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Q 먼 단위 중학교로 학생들이 통학불편 때문에 시내학교로 입학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이르러 지난해 7월부터 학교발전기금과 학교 예산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학생들 16명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정원 34인승 차량으로 초등학생 13명을 통학시키고 있고 중학교 전세버스와 중북구간을 운행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교육감 현재 초·중등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40% 정도, 학교장마다 책임관계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지키지 않는 곳이 있음

Q 지난해 의원이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교육감님께 질의했을 때 교육감께서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음,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시는지?

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의 경우에는 아마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에듀버스 제도임



이 종 주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

Q 강원도와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

가 2017년 개장 예정인데,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도지사 지금까지는 2017년 상반기 중에 개장할 것으로, 몇가지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잘 해결돼서 예정대로 개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Q 동계올림픽을 문화·관광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도지사 1982년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까지 GNP가 딱 두 배로 성장해서 중진국으로 진입,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선진국 대한민국 그리고 소득 3만불 대한민국, 3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Q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정 2기의 공격적인 도정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도지사 제일 큰 과제는 올림픽 준비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항 3단계 공사, 양양공항의 확충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임



곽영승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평창군 제2선거구

Q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
고, 인사이므로 공무원 조직 운영에 가장 중

요한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지사님께서 인사를 했다면 이 조직이 동요
하고 비판 여론이 일고 말이 많음, 왜 그런
지?

도지사 인사는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Q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이라 연공서열을 중
시하는데, 지사님 인사는 이 연공서열을 깬
다는 것임. 이러다 보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도지사 균형이라고 생각함. 연공서열을 너무
중시해도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

고, 그렇다고 과격적으로 해도 실망감을 주
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일에 있어서 균형이라
고 생각함

Q 조직의 건강을 위해 탕평인사해야 된다는
이념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고, 지사님 주변
에 지사님 만큼 마음을 쓰고 업무를 돌보고
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도지사 제가 패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을 제
평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고 제 사람을 만들
지 않음.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투명한 조직
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 그렇게 하고
있음



안상훈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시 제3선거구

Q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시민단체
가 제안한 레고랜드 개발사업 공개검증 시민
공청회를 집행부가 거절했는데 특별한 이유
가 있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시민단체가 공개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신을 드렸

고, 사업 시작 전에 이미 공청회 절차를 거
쳐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업계획들을 안내
해 드렸음. 다만, 추진과정의 문제를 제기하
는 일부 반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
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공청회는 바람직하
지 않음

부분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
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음

Q 도내에는 119 지역대가 50개소가 있으며,
이 중 1일 3명이 근무하는 곳이 1개소, 2명이
근무하는 곳이 28개소, 1명이 근무하는 곳
이 21개소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역대에서
소방펌프차를 운영하면서 혼자 근무하며 화
재발생 시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충원

하여 1인 근무 지역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
는지?

소방안전본부장 1인 지역대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3~4개 지역대에 출동명령이
동시에 내려져서 합동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본부 상황실에 갖추어져 있음

Q 시·군 단위에서 구제역 발생 전, 평소에는
거점 소독시설 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
제 유입될지 알 수 없으므로 상시 차단 소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농정국장 도 권역을 5~6개 정도 나눠서 권
역별로 길목을 상시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음



김기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Q 예전에 MBC사장님 하실 때의 연분 등으
로, 지사님께서 직접 강원도로 드라마 촬영
장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삼고초려처럼
애도 많이 쓰셨음.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원주 지역이 잘 발달된 도시이면서
도, 관광의 포인트가 없어 좀 만들자는 논의
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음. 그 중 상시적인 문
화콘텐츠로 드라마를 찍어보자는 뜻에서
원주로 와서 촬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음

Q 도유지 매입을 작가분은 요청도 안 하셨
는데, 매각 얘기가 나왔을리는 없을거 같은
데요?

도지사 사업을 하는 대표가 본사를 이전해
오고 싶다 하고, 본사가 와서 하려면 영구건
물을 지을 땅이 필요하고 하면서 나옴

Q 처음에 계약할 때 유상임대로 계약하셔서

원주시에서도 5년 유상임대 조건으로 2억을
출자했음?

도지사 아마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가는 것으
로 생각을 했을 것임. 하지만 서로 얘기하면
서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서 드라마를 여러
편 찍어 달라고 부탁을 했음

Q 처음부터 깨끗하게 원안으로 가시고, 거
기에서 성공을 하시면 추후에 이런 매각이나
매입 얘기를 꺼내셨으면 됐는데?

도지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
만,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 좀 더 원주 발전
을 위해서 확실히 담보를 받자, 본사가 와주
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의
로 생긴 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람



김 성 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1선거구

Q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의 5~6곳을 경영하고 있고 매입을 했음, 알아보니 5,000원 주식을 9,000~ 9,500원, 비싸게는 1만 2천원, 미시령터널은 1만 2,500원에 매입했음.
강원도나 국가에서 매입할 때 부담이 큰 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속초 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함. 그 당시에 민자터널·도로 등이 많이 생길 때 였고,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진행이 된 것으로 봄
Q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 관련 소송을 시작한 것인데, 일선에서 노력해 주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투입시켜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도지사 담당 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조직을 따로 만들 필요는 아직 없음, 향후 인력 수요가 더 생기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음
Q 동서고속철도 B/C가 이번에 0.97 나왔음, 1이 나와야지만 비용편익에서 사업성이 있다

고 나오는데 0.03이 적게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지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예타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봄
Q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교육감 유치원 누리과정은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예산 편성을 했음.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강원도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임



홍 성 옥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태백시 제2선거구

Q 강원랜드는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총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고, 1992년 부터 국세인 계절소비세를 총

매출액에 부과함으로써 폐광기금이 100억 원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세금인지 설명해 주시길?
기획조정실장 레저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카지노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마, 경정, 경륜 등에 있어서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음,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카지노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세목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레저세가 국회안대로 총매출액의 10%, 그

다음에 교육세와 농특세 2%를 포함해서 총 16%가 부과된다면 강원랜드의 이익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금의 25%를 가져오는 폐광기금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기획조정실장 카지노 레저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폐광지역 시·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음.
지금 개정 법률과 병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관련 법안도 같이 국회에 제출 되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김 용 래 의원
교육위원회 / 강릉시 제3선거구

Q 문화관광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가 용역을 주

어서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오게 될 거 같음
Q 2010년 민병희 교육감님의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근 6,000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교원과 일반직의 정원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교육공무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이러한 추세로 가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교육감 지금 교육공무직은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채용하도록 시켜 놓고 처음에 돈을 주다가 안 주고 책임을 저희에게 떠 넘긴 것임. 그리고, 인건비 상정을 할 때 13개 직종만 가지고 나머지는 상정하

지 않아서 교부금이 부족함
Q 교육공무직의 복지수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매년마다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직종에 대한 급여만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교육청 안에 있는 제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교육감 현재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총정원제로 인해서 26명이 감이 되었음, 그것을 학급 수나 학교 수에 비례해서 선정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5분 자유발언

옛 원주여고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243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3. 11.(수)



최 성 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원주시 제6선거구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기간 중에 원주를 방문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명륜동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연장과 창작실,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지사님은 원주여고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만 했을 뿐,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원주시에

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부지 활용에 대한 의향을 강원도에 물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으며, 특히, 문화예술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춘천에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는 타당성이 있는데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하면 원주시민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기에 도에서 매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지매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정보도 접하였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영서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유보하고 공약 사항이신 옛 원주여고 부지를 하루 속히 강원도가 매입하고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랜드 계약제 직원 해고에 따른 구제관련

제243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3. 11.(수)



남 경 문 의원

교육위원회 / 정선군 제2선거구

지난 2월 17일, 강원랜드는 1차 교육생 288명 중 152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26일에는 2년간

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차 교육생 177명 중 92명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생 465명 중 절반이 넘는 244명이 계약해지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장 증설허가를 받고 테이블 증설 및 영업장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교육생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등 수십대 일, 또 많게는 수백 대 일을 거쳐야만 선발되며, 2년간의 직무훈

련과 적응기간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생에 선발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들어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생들에게 창졸기간(倉卒之間)에 날아든 계약해지 통보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가히 짐작하

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교육생 대량 실직사태의 발단은 공기업 임직원 정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현 강원랜드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 관련

제243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3. 11.(수)



심 영 섭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강릉시 제1선거구

강원 테크노파크는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창출을 목적으로 모든 기술자원이 집적화된 산업 기술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의 부속센터인 신소재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 강릉시에서 육성한 파인세라믹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2005년 통합 흡수하면서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공장 등 5개 동의 지원시설과 150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87개 기업에 기술,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릉시에서는 2005년부터 도비보다 78

억 원이나 더 많은 180여 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릉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강릉 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 사업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2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2014년 8월 새로이 제5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강원 테크노파크와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원 테크노파크의 인사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원 테크노파크가 내부 갈등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인사정책의 시정 방향

제243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3. 11.(수)



이 문 희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시 제3선거구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2010년 9월, 교육감 당선과 함께 현 비서실장을 파견교사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사가 교육감을 단순 보좌하기 위한 평교사의 비서실 파견 근무는 법 취지에도 부당하고, 결국 학생 교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곧 학교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강원교육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견교사 근무 1년 6개월 만인 2012년 3월 1일 자로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그 후 현 비서실장을 2012년 10월 1일 비서관 직렬의 지방계약직 5급 상당 사무관으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은 해당 직무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비서실장은 비서직과 거리가 먼 교직 경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 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교직과 비서직의 연관성을 볼 때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내용인 장학관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교감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원교육 현장에는 2015년 9월 이후 인사에서 강원도교육감이 인사권을 또 남용하여 현 비서실장을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으로 임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일부 타 시도 진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새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9시 이후 1교시제, 중학교 신입생 반 편성고사 폐지, 선심성 무상급식 복지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행·재정적으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시정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원주 현안 사업 관련

제243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5. 3. 11.(수)



원 강 수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원주시 제5선거구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작년 9월 11일에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외주 프로덕션,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1만 8,000평 부지 중에 9,500평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부결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규모를 줄여서 공유지 2,700평을 또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또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더 이상 나갈 땅이 없으니까 바로 그 금싸라기 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미래 개발가치는 지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산정을 하지 못하는 곳

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치악산 드림랜드입니다. 오는 10월 28일에 6만 2,000평이 강원도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도유지 6만 2,000평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작년 연말에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했느냐, 올해 1월, 2월 들어서 측량작업을 했고 감정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5,000㎡이하의 공유재산은 도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 그 단서조항은 5,000㎡ 이하 면적

의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를 지금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안 해도 드라마 세트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지 않으면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저는 이런 꼼수행정이나 특혜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소방헬기 구입관련 막대한 국고유출 막아야

제243회 임시회 / 5차 본회의 / 2015. 3. 20.(금)



정 재 응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시 제5선거구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간곡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230억 원에 대한 전액 국비 반영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강원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3년차 예산 지원은 50 대 50의 지방비 매칭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무를 위해 임무수행 중 소실된 만큼 도비 부담의 귀책사유가 전무함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소방헬기 구입비용의 전액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국군과 경찰에 이어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국책사업의 결과물인 국산 헬기를 반드시 도입해서 더 이상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을 통해 국산 헬기 수리온이 소방본부 다목적 헬기로 입찰 자격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원소방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맞는 적합한 내용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격서가 작성되었는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지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않은지, 혹시 편협한 판단과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즉시, 외자조달을 내자조달로 전환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 이강일 본부장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것을 정중히 주문드립니다.

국산 헬기 운용의 장점과 안전성은 이미 국군과 경찰청의 수리온 헬기 배치 운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산 소방헬기 도입의 이점은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예산 사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교 급식종사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제243회 임시회 / 5차 본회의 / 2015. 3. 20.(금)

**최 성 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원주시 제6선거구

교육부에서는 작업공간 구획으로 교차오염방지, 현대적 조리기구 확충,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등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

업을 올해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536개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대상학교 중 수동으로 관리하는 학교는 522개 학교, 정보화한 학교는 14개 학교로 정보화율이 2.6%로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 가슴을 졸이며 고

통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학교급식 기반구축을 통한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능력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CCP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자주적 일체감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 인력 등의 낭비 요소 제거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식중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급식관리와 CCP 실시간 기록관리로 교차오염 방지 등의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CCP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촉구

제243회 임시회 / 5차 본회의 / 2015. 3. 20.(금)

**임 남 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태백시 제1선거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들의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간접적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되풀이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의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지사님이 공동회장이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유관기관, 시도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북방경제시대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리 도 규제완화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국방, 물, 산림, 환경, 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배분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규제에 의한 기업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논리 마련과 도내·외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제언

제243회 임시회 / 5차 본회의 / 2015. 3. 20.(금)

**김 기 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후에 시장·군수, 대통령, 도지사처럼 큰 권한을 받게 되어 뜻한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행되고 있는 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처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의 결과가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지 모르는데도 추진되고 있지만, 고작 도 전역 7,200만 원 드는 사업을 이런저런 핑계로 일몰시킨 강원도정으로 인해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과 눈물겨운 가난으로 인해 공장으로, 일터로 내몰렸던 장남 외의 아들들, 특히 딸들처럼 강원도 전역에 배움의 한을 가지고 야학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도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주 누리아학은 터전을 잃었지

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건물 4층, 단돈 1원의 지원도 없지만 선생님들은 자비로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주경야독하며 검정고시를 보려고 아픈 무릎으로 4층까지 오르는 분들은 바로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신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7,200만 원을 마련해 드리고 싶지만 제 힘이 도지사님에 비해 극히 미비해 고작 견제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저 강원도민 김기홍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몰되어야 할 사업들은 추진되

고 확대시켜야 할 사업들은 일몰되는 도정에 이의 있습니다.

100%의 확신으로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7,200만 원은 충분히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는 아주 작고 쉬운 일이지만 이처럼 큰 행복, 확실한 행복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푸시고 과감한 결단과 정리, 그리고 결심을 통해 큰 사업들도 풀어가셔서 더 사랑받으시는 지사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243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최성현 의원, 이정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
※ 다만,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 의 자 : 원강수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무 중 부상 또는 순직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포함 되도록 조례 제2조제1항의 제4호를 신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구 분	정원(명)		
	당초(A)	변경(B)	증감(B-A)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338	4,451	113
집행기관의 정원	1,887	1,923	36
소방안전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2,320	2,396	76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0	50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1	82	1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인력수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년차별 시행계획인 ‘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확정(2015. 1.27)됨에 따라 국비(295억) 지원에 따른 지방비(도비) 매칭 예산에 대해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

-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던디코 퍼레이션 국내법인 자본금 45억원 중 9억원 (도 출자 15억원 중 6억원은 2014년 예산 반영, 9억원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출자

|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발 의 자 : 강원도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동참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암중학교 이전을 추진하고자 함

|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직원 정원을 추가로 승인 하여 줄 것을 강원도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했고,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수 10인 이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활동기간을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재임기간까지에서 2016년 6월말까지로 수정의결 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현지시찰 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2015년도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방안전본부,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사용료 납부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조례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지방'의 용어를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2015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지시찰했다.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문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문화콘텐츠 확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부산에 소재한 ‘영화의 전당’과 ‘문화콘텐츠컨플렉스’를 근현대사 자원의 관광상품 성공사례로 꼽히는 ‘국제시장’과 ‘감천문화마을’을 현지시찰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옥수수연구소의 주요 시설물을 현지시찰 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현장을 현지확인 하였다. 또한, 문막농협을 찾아가 주요 현황 및 RPC를 시찰하였고, 횡성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방문 식자재 납품 방법 청취 및 시설물을 견학했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제243 임시회 기간중 강원도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홍천의 서울대시스템 번역의학 연구소, 영월의 (주)동강시스타, 원주의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현지시찰 했다.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반대 및 강원랜드 정원 승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였고, 2015년도 폐광지역개발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분권특별위원회

- 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는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사결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동)는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였고,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15~2019) 용역 결과 및 2015년도 장애인시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3월 23~24일 이틀간 동계올림픽 신축 경기장 건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해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중봉 알파인 경기장 등을 현지시찰 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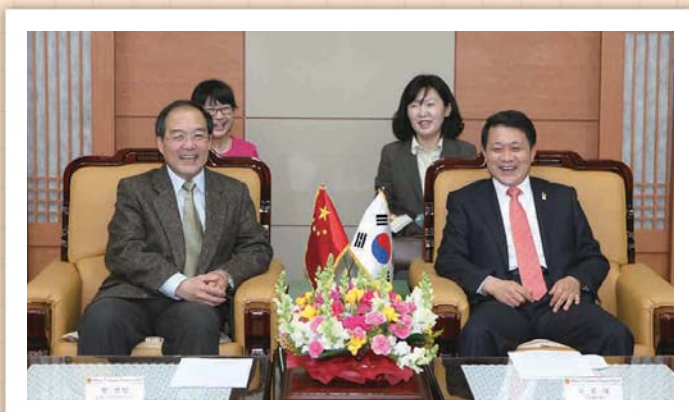
● 2015. 3. 16 일일 명예도지사·명예의장 교환 근무



● 2015. 3. 19 강원도의의회 의원연구회 창립 총회



● 2015. 3. 19 중국 길림성 정협 방문단 강원도의의회 방문



의원동정

- 

▲ **김시성 의장**은 3월 12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축하교례회'에 참석, 3월 27일 전주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은** 3월 17일 동해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협의회 망상지구 간담회'에 참석, 3월 2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상반기 강원도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 **남경문 폐광지역개발촉진 지원특위위원장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 3월 2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 **김동일 부의장**은 3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통선 조정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에 참석, 3월 10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 **이문희 교육위원장은** 3월 3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원주시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3월 8일 원주중학교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 

▲ **강청룡 도의원은** 3월 4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3월 6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린 '생활개선회 강원도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 **권석주 부의장**은 3월 3일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5년도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3월 10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 **김기홍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3월 3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원주시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3월 5일 원주 중앙동 기관단체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다.
- 

▲ **곽영승 도의원은** 3월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3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 

▲ **임남규 운영위원장은** 3월 12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3월 13일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다목적 강당·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 **오세봉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은** 3월 12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점검, 3월 13일 강원도인재개발원 '다목적 강당·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 **김기철 도의원은** 3월 10일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사옥 이전식'에 참석, 3월 20일 정선군청에서 열린 '지역현안협의 의원초청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 **함종국 기획행정위원장은** 3월 3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인대학 개강식'에 참석, 3월 12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 **구자열 분권특위위원장은** 3월 11일(수)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18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 

▲ **김성근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18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3월 9일 춘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봄내 친구랑 개소식'에 참석, 3월 11일 춘천교육대학에서 열린 '강원문인협회 임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 

▲ **장세국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은** 3월 12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 주요 시설물을 점검, 3월 13일 춘천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다목적강당·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 **김연동 도의원은** 3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3월 19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 

▲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은** 3월 2일 강릉 사천중학교와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 3월 27일 강릉 주문진문화교육센터에서 열린 '강릉수협 제17대 조합장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 **이정동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은** 3월 9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원주신문 창간식'에 참석, 3월 13일 강원도 첫 장애인 체육관인 '원주드림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 

▲ **김용래 도의원은** 3월 1일 강릉 경포만세탑에서 개최된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3월 2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 **김용복** 도의원은 3월 12일 강원도 옥수수연구소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현장 방문, 3월 26일 경동대학교에서 열린 '제9회 총학생회 출범식 및 환영회'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30일 강릉시 내곡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내곡동 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다.



▲ **정재웅** 도의원은 3월 17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3월 2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남평우** 도의원은 3월 5일 인제군청 광장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맞이 지신밟기 행사'에 참석, 3월 10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201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참여자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 **안상훈** 도의원은 3월 20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여성컬링 선수단 창단식'에 참석, 3월 2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강원연합회 굿모닝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 **진기엽** 도의원은 3월 3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횡성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에 참석, 3월 5일 횡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 **박길선** 도의원은 3월 5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공공구매 사업설명회'에 참석, 3월 2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강원연합회 굿모닝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 **오원일** 도의원은 3월 1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3·1절 건강달리기 개회식'에 참석, 3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최명서** 도의원은 3월 3일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5년도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3월 13일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다목적강당·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도의원은 3월 10일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사옥 이전식'에 참석 후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새마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원강수** 도의원은 3월 10일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사옥 이전식'에 참석, 3월 26일 강원도원주의료원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식'에 참석하였다.



▲ **최성재** 도의원은 3월 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2015년 공공구매사업설명회'에 참석, 3월 10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박현창**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25일 지방도 424호선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포장대상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유정선** 도의원은 3월 10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도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3월 20일 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강원도 청소년문화센터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 **최성현** 도의원은 3월 3일 춘천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력개발원 스피치과정'에 참석, 3월 25일 춘천호반체육관 테니스장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지역여론을 청취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3월 4일 홍천 내촌면 체육공원에서 열린 '내촌면 달맞이 행사'에 참석, 3월 10일 홍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새농어촌건설 활력화 대회'에 참석하였다.



▲ **이종주**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20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한금석** 도의원은 3월 1일 철원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3·1절 철원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 3월 23일 갈말농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철원군 산림조합 제19대 조합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도의원 3월 10일 홍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활력화 결의대회'에 참석, 3월 12일 강원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점검하였다.



▲ **장석삼** 도의원은 3월 9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농업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 3월 12일 강원도옥수수연구소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현장을 현지 시찰하였다.



▲ **홍성욱** 도의원은 3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3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3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 **심영곤** 도의원은 3월 3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 3월 13일 삼척농협에서 열린 '농촌지도자 삼척시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에 참석하였다.

